

사진기자의 땅짓



환경미화원의 달콤한 휴식시간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도심 빌딩가 양쪽에 환경미화원들이 앉아있습니다. 벌써 정소를 마쳤는지 주변엔 담배꽂초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한 시멘트 바닥의 휴식이지만 편안해 보이네요. 한때 3D 업종으로 기피받았던 환경 미화원은 최근 수십대 1에 달할 정도로 모집경쟁이 치열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데도 월급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움도 많습니다. 한 미화원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스크를 쓰

고 있더군요. 왜 그런지 다가가 물었더니 매년 때문에 코를 풀면 휴지가 새까맣게 되기 일수라더군요.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쓸모있는 것도 너무 많답니다. 특히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마지막까지 남아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뒷마무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모두가 가져다 버리는 물건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 미화원들만의 바람일까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김숙희

〈문흥중앙초등학교 교사〉

나보다 조금 못한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그 친구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낫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밖에 모른다고 흔히들 말을 한다.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던 우리 반 아이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지난해 3월2일 학급을 배정받기 전 교감 선생님이 "6학년엔 특수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종이접기와 십자수 놓기는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미경이의 능력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또 같은 반 친구들은 미경이의 솜씨를 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학급 환경 정리를 미경이에게 부탁했다. 나로서는 일석삼조였다. 미경이는 뛰어난 종이접기 실력으로 우리 교실을 예쁘게 꾸며 놓았고,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은 미경이에게서 종이접기를 배울 수 있었다. 또 계발활동시간에는 종이접기부에 들어가서 맘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었다. 미경이를 대하는 애들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졌다. 애들은 소풍·현장체험학습·야영활동 등 언제 어디서나 미경이를 먼저 챙겼다. 미경이도 짜증내고 소리지르던 시간보다 웃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미경이가 먼저 다가가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친구들이 미경이를 챙겨주고 함께 놀며 조금은 서툴러도 소집단 활동에도 참여시켜줬다.

친구를 배려하는 착한 아이들에게

난 주저하지 않고 "제가 맡겠습니다"고 답했다. 미경이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미경이는 정신지체 2급에 장애아였다. 애들과 처음 만나던 날, 미경이는 신경질적인 괴성과 함께 책가방을 책상에 내리치는 행동을 보였다. 새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 교실 등 낯선 환경에서 지른 소리가. "누가 우리 미경이를 화나게 했느냐?" 했더니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라고 대꾸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다. 미경이가 화장실에 가고 없는 사이에 난 우리 반 아이들을 설득했다. "미경이는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너희가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할 친구야. 너희는 미경이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익힐 수 있으니까 미경이에게 감사해야 한다." 미경이는 월·수·금요일 오후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십자수 놓기,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수영, 볼링 등 다양한

미경이는 날마다 학교생활이 신났다. 우리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변호를 추천해서 자리를 배정하는데, 1학기 초엔 미경이가 짝꿍이 되면 약간 싫어하는 눈빛을 보이던 친구들도 2학기엔 남·여 모두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을 갈 무렵이었다. 특수반 선생님이 와서 "미경이 때문에 힘들 텐데 보조 선생님과 함께 가게 할까요?" 물었다. 나는 애들에게 되물었다. "보조 선생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31명이 잘 챙겨주면 되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마음속 끔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을 만나 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사랑한다! 6학년6반! 너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의 몫을 다하게 될 거야. '될 사실은 나무는 뿌리부터 다르다'고 하잖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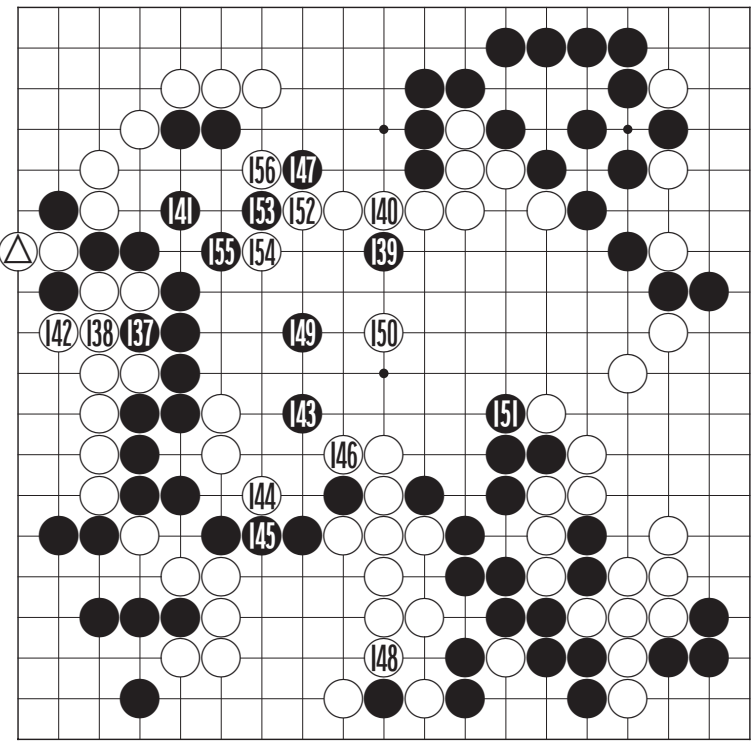
뉴스퀴즈

48.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연도(2005.11~2006.10)의 기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경우 2001년 88.9kg에서 2003년 83.2kg, 2005년 80.7kg 으로 감소 추세속에 서도 80kg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8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얼마니 될까요. ① 78.8kg ② 80.7kg ③ 90kg ④ 100kg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은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5일 丁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수상전의 묘수 10보(137~156) 최강부 결승 백 홍석의 6단 <목포시> 흑 김종민 6단 <해남군> 차단이 무산되자 할 수 없이 141로 물러나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흑 143을 선수하고 147로 연결을 꾀하는 동안 홍 6단은 148로 틈틈히 짝꿍한 실리를 챙기고 있다. 현재 흑집은 좌하귀가 11집, 우상귀가 44집, 하변이 4집으로 합계 59집 정도인데 비해 백집은 좌상귀가 30집, 우하귀쪽이 20여집, 하변이 8집으로 합계 58집이다. 흑이 텅을 내기가 힘든 형세인 것이다. 홍 6단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154, 156으로 계속 강공을 펼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삼성화재배 1국 패배 이창호 9단이 22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결승 3경기 제1국에서 중국의 창호 9단에게 238수 끝에 흑 불계패했다. 이 9단은 1시간 가량 갯감을 주고 받은 좌변 전투에서 창호 9단이 쓴 갯감을 받지 않고 대미를 살린 뒤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갯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 9단은 자신의 집이었던 우상과 우변을 허용했다. 실리에서 손해를 본 이 9단은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대회 타이틀 향배를 결정할 제2국은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회 우승상금은 2억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o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A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xercises. Each column contains a title, a question or statement, and a corresponding answer or explanation in the target language. The columns are: 1. English (It really depends on~), 2. Japanese (ほっとけばいいのよ), 3. Chinese (熊猫宝宝), 4. Korean (七步之才).